

석사학위 청구논문

돌가마

-제주 전통 돌가마 사진전-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학과 포토저널리즘전공
김 호 천

2003년 2월

전시 일정

제주 :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 2002년 12월 14일(토)~20일(금)

돌가마

-제주 전통 돌가마 사진전-

지도교수 양 종 훈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3년 2월 일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학과 포토저널리즘전공

김 호 천

이 논문을 김호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양 종 훈 인

심사위원 구 자 호 인

심사위원 김 녕 만 인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2003년 2월 일

‘돌가마’ 사진전을 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돌로 축조된 제주의 가마는 1960년대 말에 맥이 끊겼다.

값싼 알루미늄과 합성수지류의 생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허벅과 같은 옹기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물건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노랑굴’, ‘검은굴’, ‘기왓굴’로 불리던 제주의 돌가마들도 편리함과 빠른 발전을 추구하는 개인 혹은 국가의 요구를 따라 가지 못하고 차례로 스러져 갔다.

1500년 전 제주 무문토기의 영향을 받아 발전·변모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 가마의 역사가 단 몇장의 사진 기록만 남긴 채 사라진 것이다.

불과 20여년 전 까지도 완전한 형태를 간직한 11기의 돌가마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떤 학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현재 이들 가마 가운데 2기가 제주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의 미약한 보존의지와, 빈약한 예산, 허술한 보존체제로 인해 이마저도 허물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998년에 전통 돌가마가 복원됐다.

제주도예원 강창원 원장은 당시 75세인 옛 도공 홍태권 옹과 고 송창식 옹 등의 지도를 받아 3년여의 작업 끝에 돌가마를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21년에 걸친 고독한 현장조사와 연구의 결실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예원의 제3대 허벅대장인 옛 도공 신창현(64세) 옹이 제주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됐다. 강 원장과 4명의 연구사들은 그의 전수생이 되었다.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에 자리 잡은 제주도예원은 현재 노랑굴 1기와 검은굴 1기를 복원,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예원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돌가마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어떤 다른 지방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제주의 전통 돌가마와 옹기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다. 나아가 전통 잇기에 젊음을 바치고 있는 제주도예원 가족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짧은 시간에 카메라 하나로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던 생각이 욕심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강한 자부심은 언제나 나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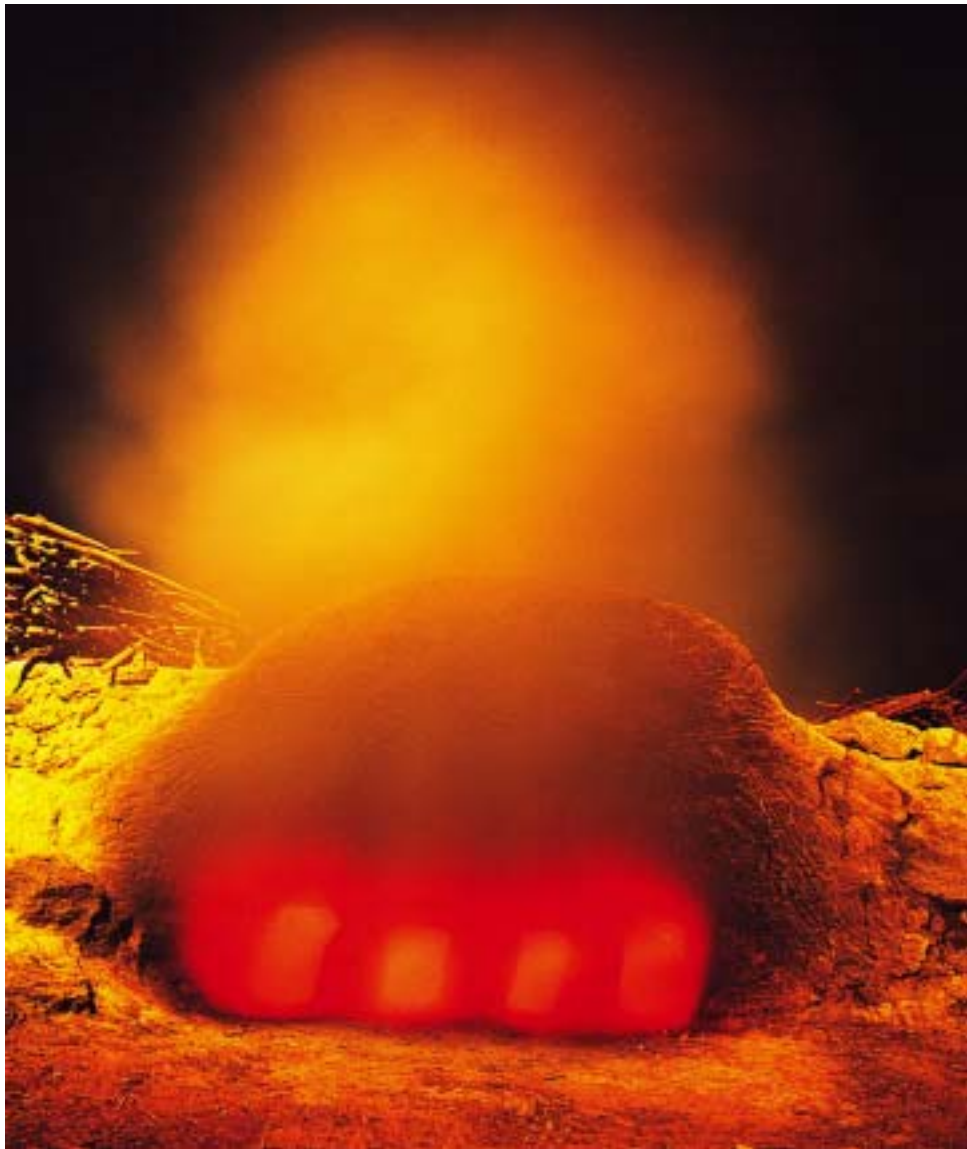
최근 자치단체의 ‘옹기박물관’ 건립 추진 등에 힘입어 옹기와 돌가마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제주 옹기와 돌가마의 전통이 지속되고,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가장 제주전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고 한다면 제주 옹기와 돌가마가 바로 그것이다.

2002년 12월

김 호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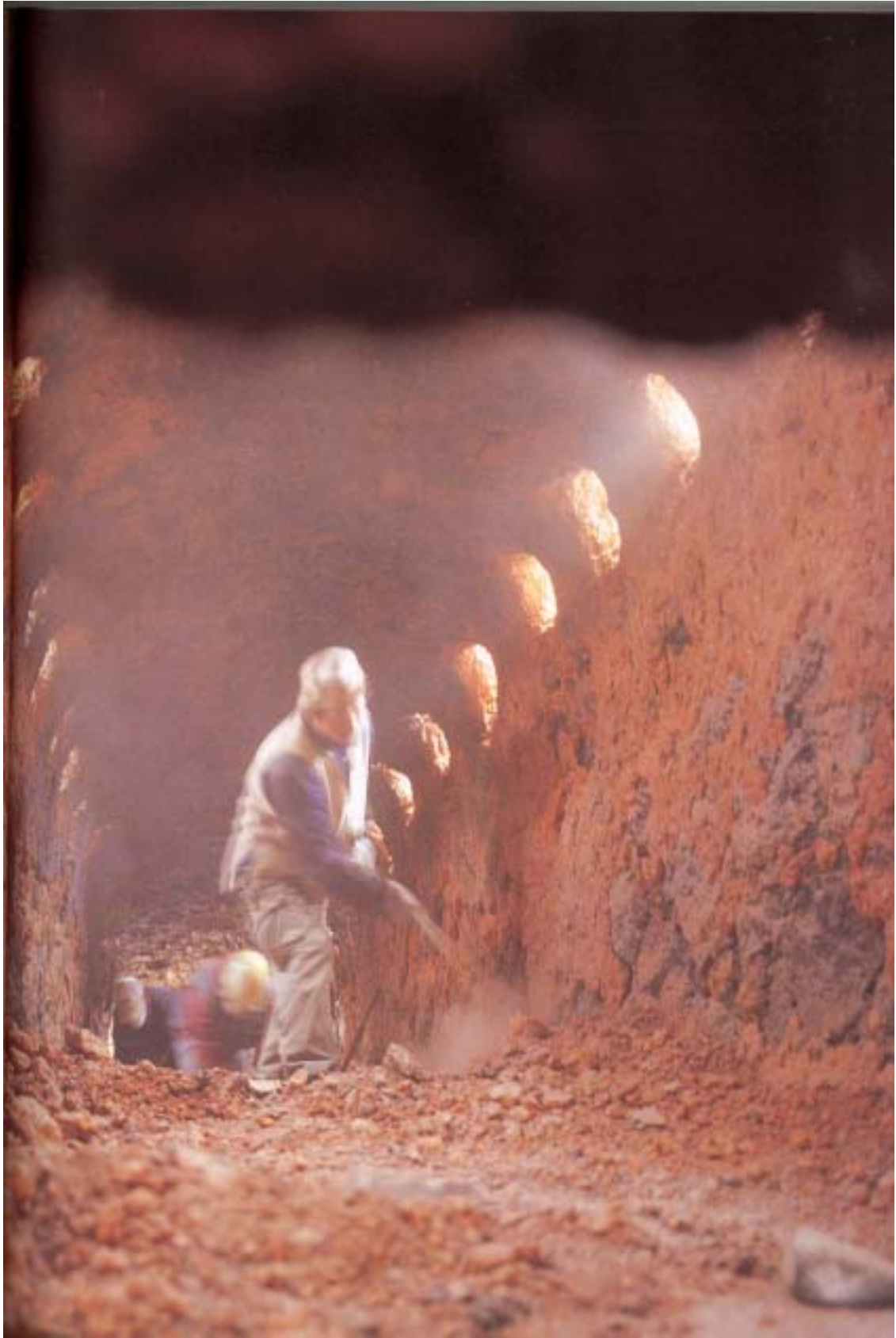
Dolgama



Jeju's traditional stone kiln chimney
돌가마 굴뚝

Dawn at the Jeju Ceramic Center
The inside-cleaning of the stone kiln
제주도예원의 세계
돌가마 내부 청소









Potter who carries firewood for Jaetbull (the last step of firing)

Drying of firewood for Jaetbul

젯불장작 나르는 도공

젯불장작 말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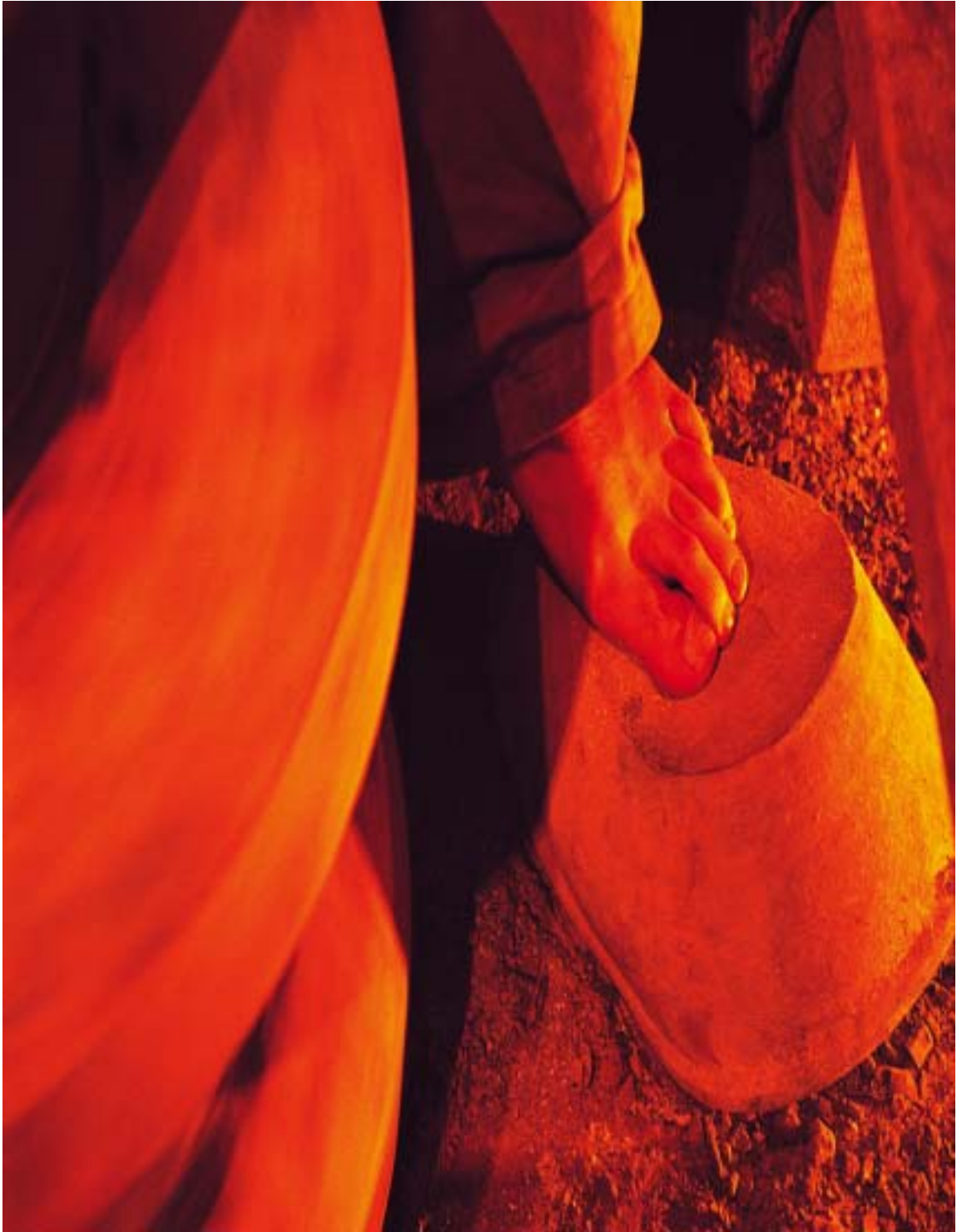
Cleaning of entrance to the stone kiln
Chimney sweeping
돌가마 입구 청소
굴뚝 청소





Filling up a hole of Jaetbull
Potter who is forming Heobeok(Water-carrier)
젓불구멍 먹기
허벅 만드는 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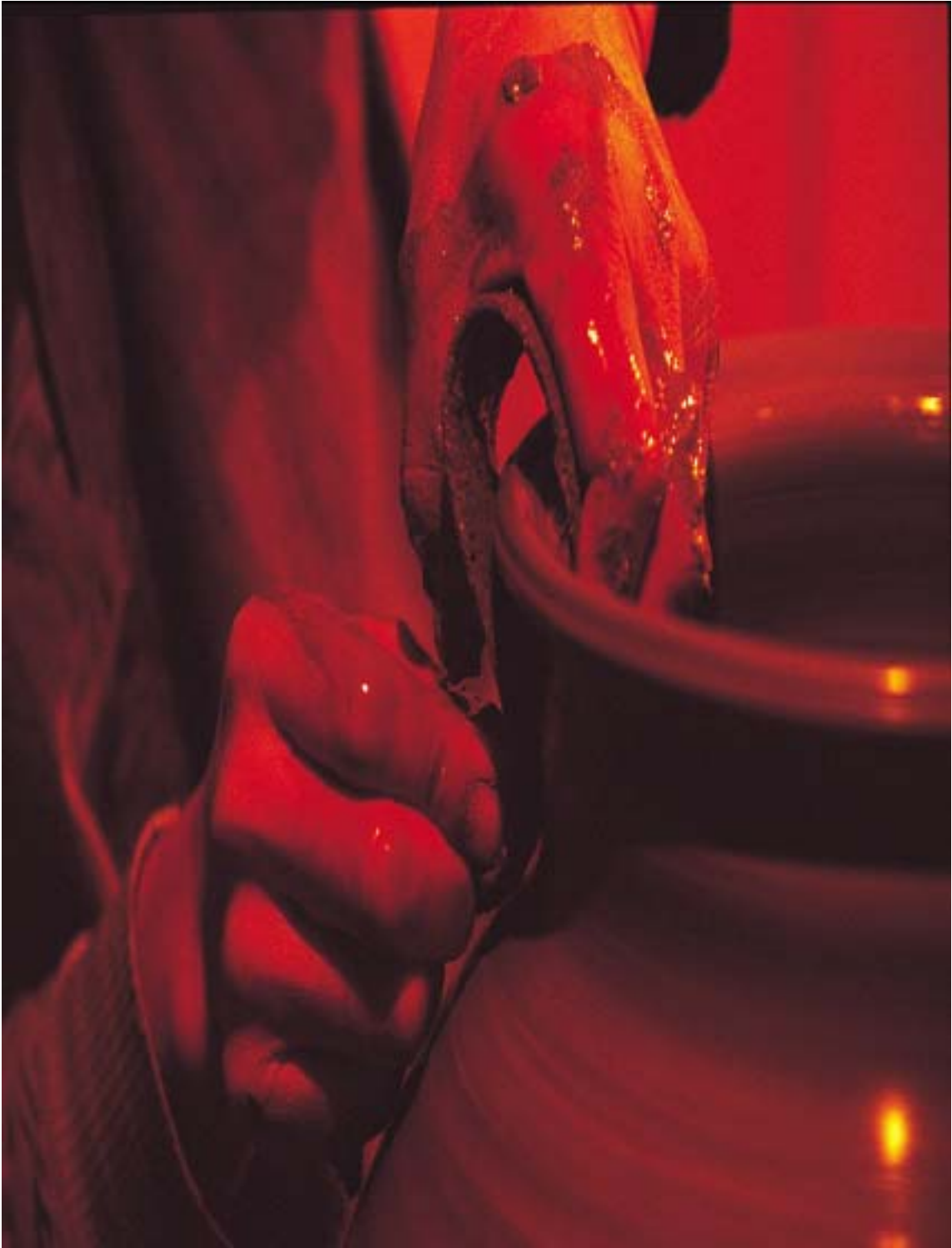


Foot spinning a potter's wheel

Potter's hands

물레 돌리는 발

도공의 손





Clay-coiling
Making rim of Heobeok
흙가래 만들기
허벅 주둥이 세우기



Decorating with a pattern
Heobeok forming-last working
허벅에 무늬 넣기
완성된 허벅 밑둥 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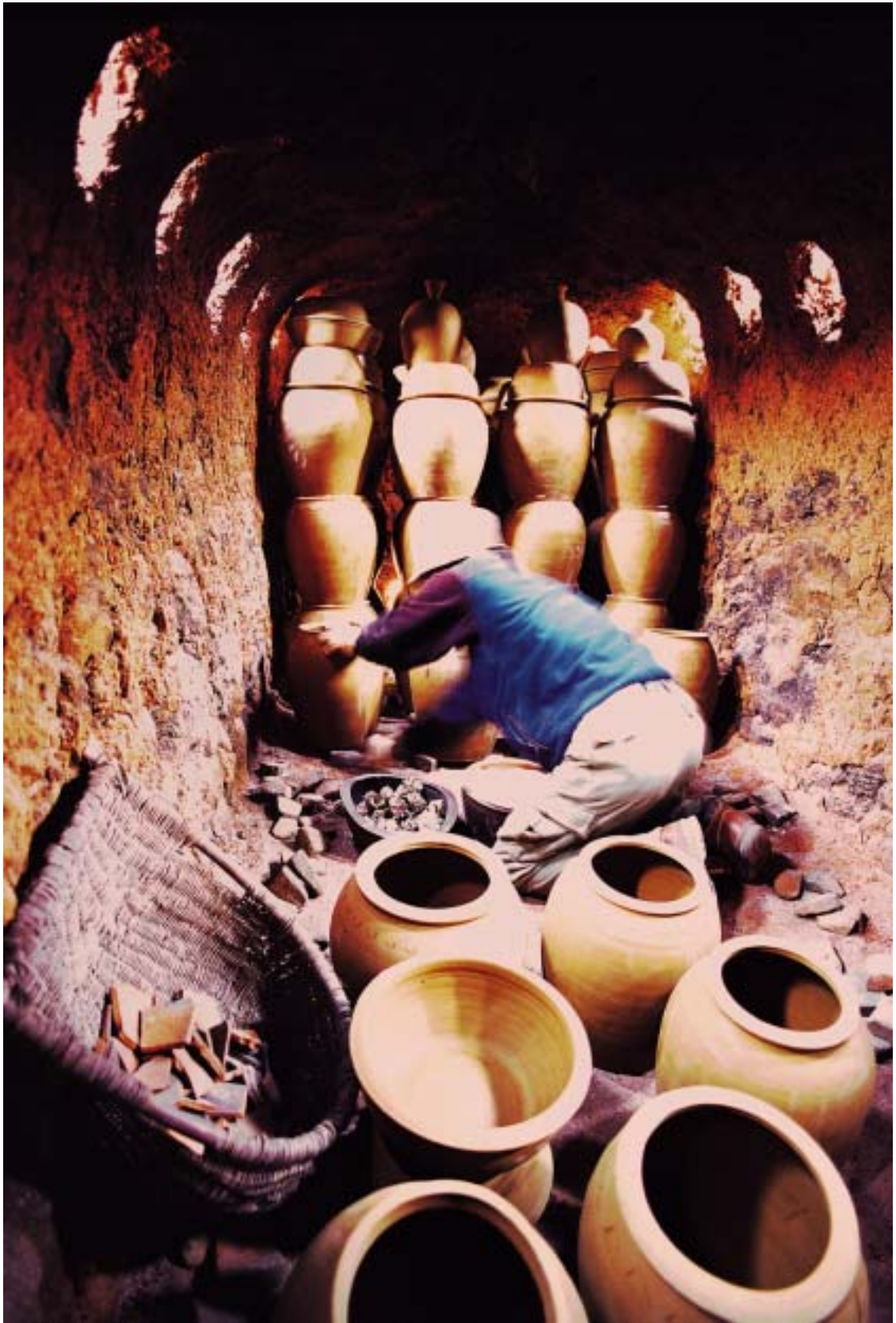
Clay-making experience
Child's working with clay
도예 체험
흙놀이하는 어린이





A child is immersed in working with clay
Works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흙놀이에 몰입한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만든 소품







Stacking of Onggi
Drying of Onggi
돌가마 속 옹기 쌓기
옹기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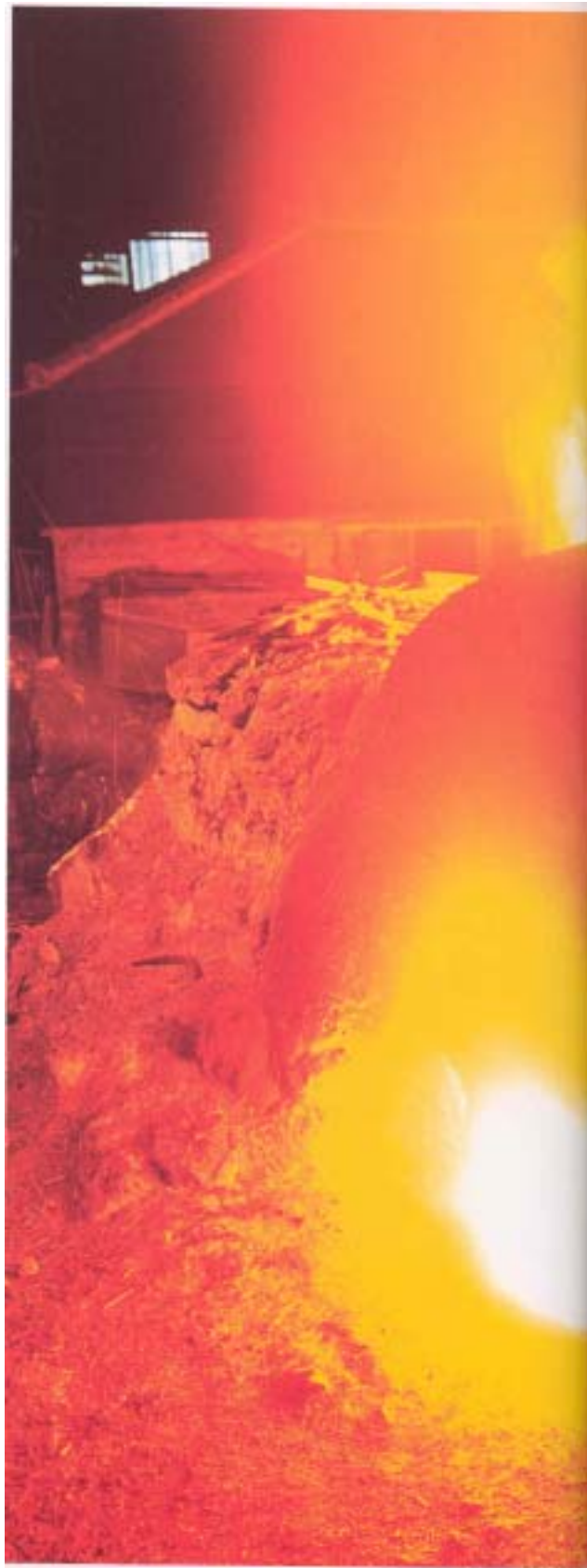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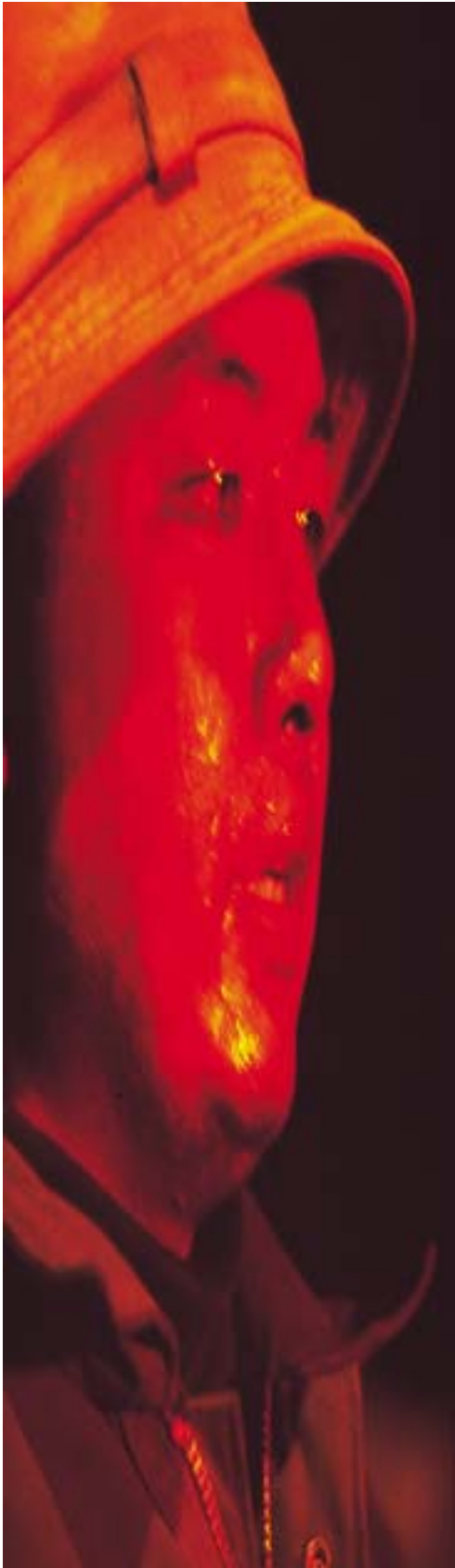
Onggi stacking viewed from the hole of Jaetbull

Memorial service before fi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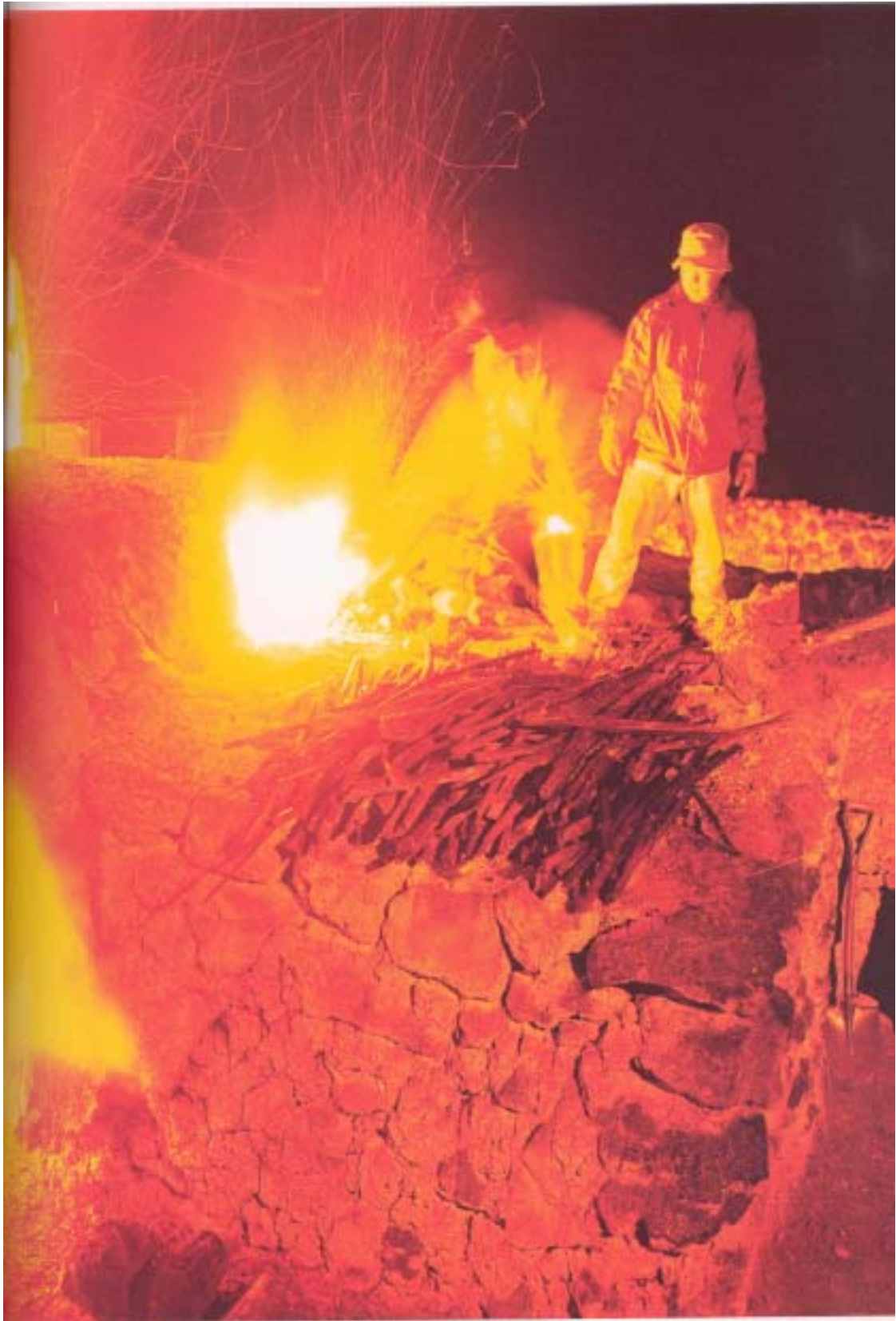
갯불구멍으로 본 옹기 쌓기

굴하르방, 굴할망, 굴대장에 올리는 제사





Flushed face 불타는 얼굴



Sight of Jaetbull-the last step of firing 켓불질 광경



Flames blazing up from the chimney

Waving charcoal fire

굴뚝으로 솟아나는 불길

휘날리는 불씨







Unloading charcoal fire in a kiln mouth

View of a stone kiln

아궁이 숯불 내기

돌가마 전경





Flames blazing up from the hole of Jaetbull

Having a night snack

젓불 구멍으로 솟아오르는 불기운
밤잠





Flames in a kiln mouth
Potter lighting up a cigarette
아궁이 속 불길
담뱃불 붙이는 불대장



Putting Sumpi-traditional firewood in kiln mouth

Stirring of charcoal fire in a m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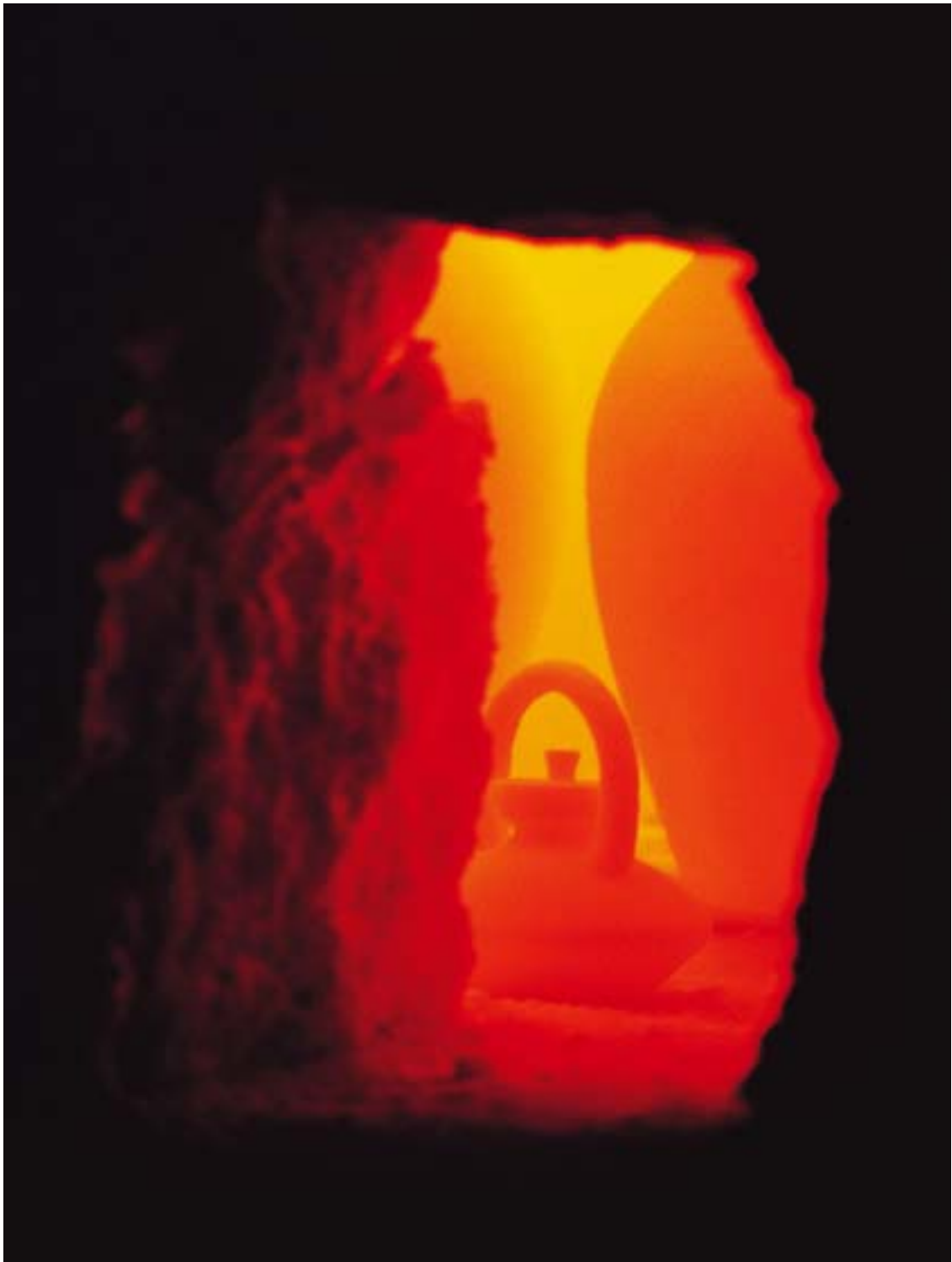
Jaetbull

아궁이에 썬피 넣기

아궁이 숯불 짓기

잣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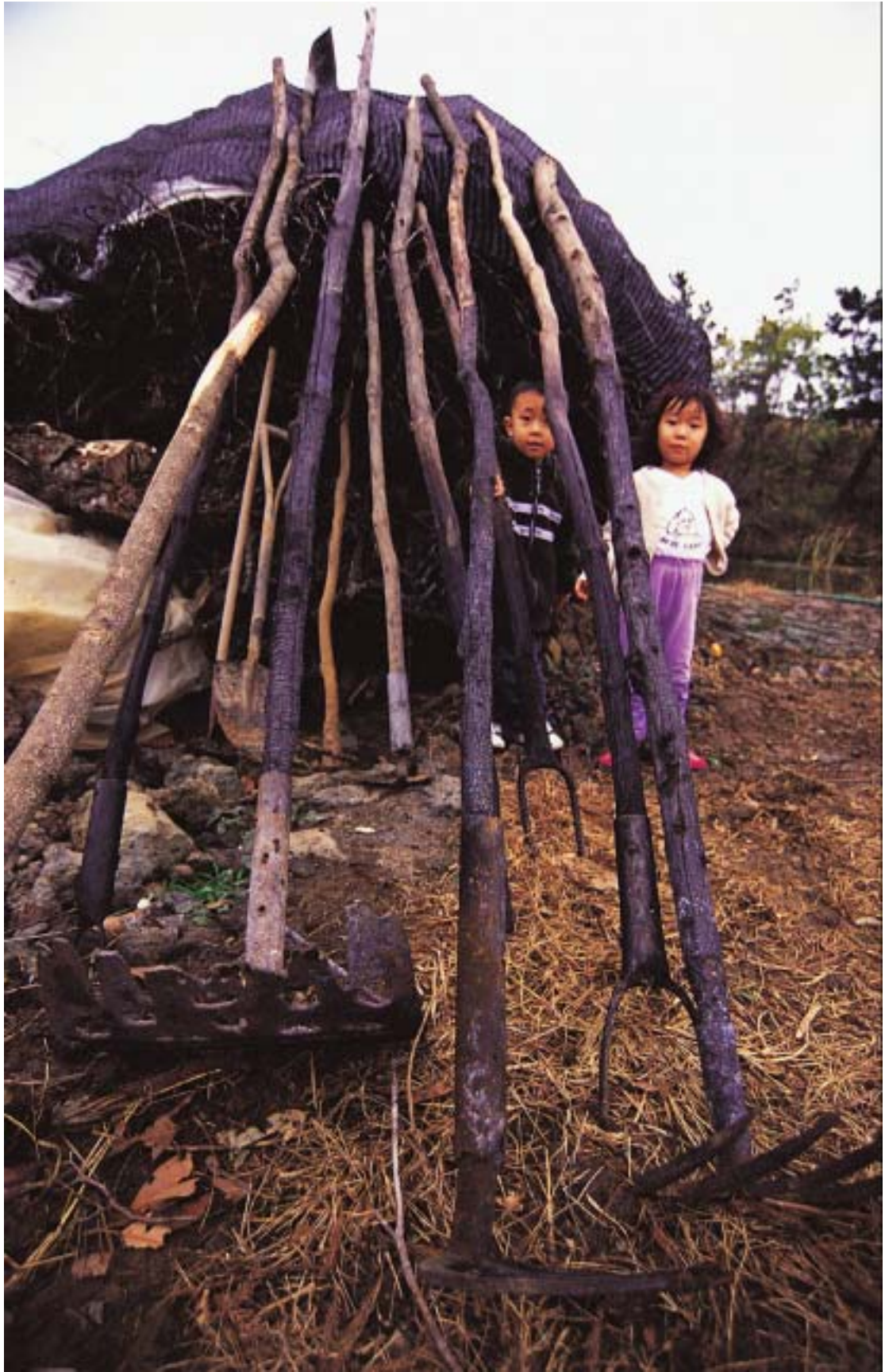
Heated Onggi

Mr. Shin Chang Hyun, a Jeju's traditional potter (Jeju's intangible cultural assets #14)

달궀진 옹기

허벅대장 신창현 옹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허벅대장)







Firing tool
Stone melt with heat in a kiln
불때는 도구
고온에 녹아 내린 가마 속 돌



People eating baked sweet potatoes

Stone kiln at dusk

군고구마

돌가마의 초저녁 풍경





Unstacking tool

Tired firing-potter

완성된 용기 꺼내는 도구
지친 불대장





Broken Onggi by high temperature

Broken Onggi in kiln

고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깨진 용기

가마 속에서 깨어진 용기들







Broken Onggi and people at the Jeju Ceramic Center

Scenery of the Jeju Ceramic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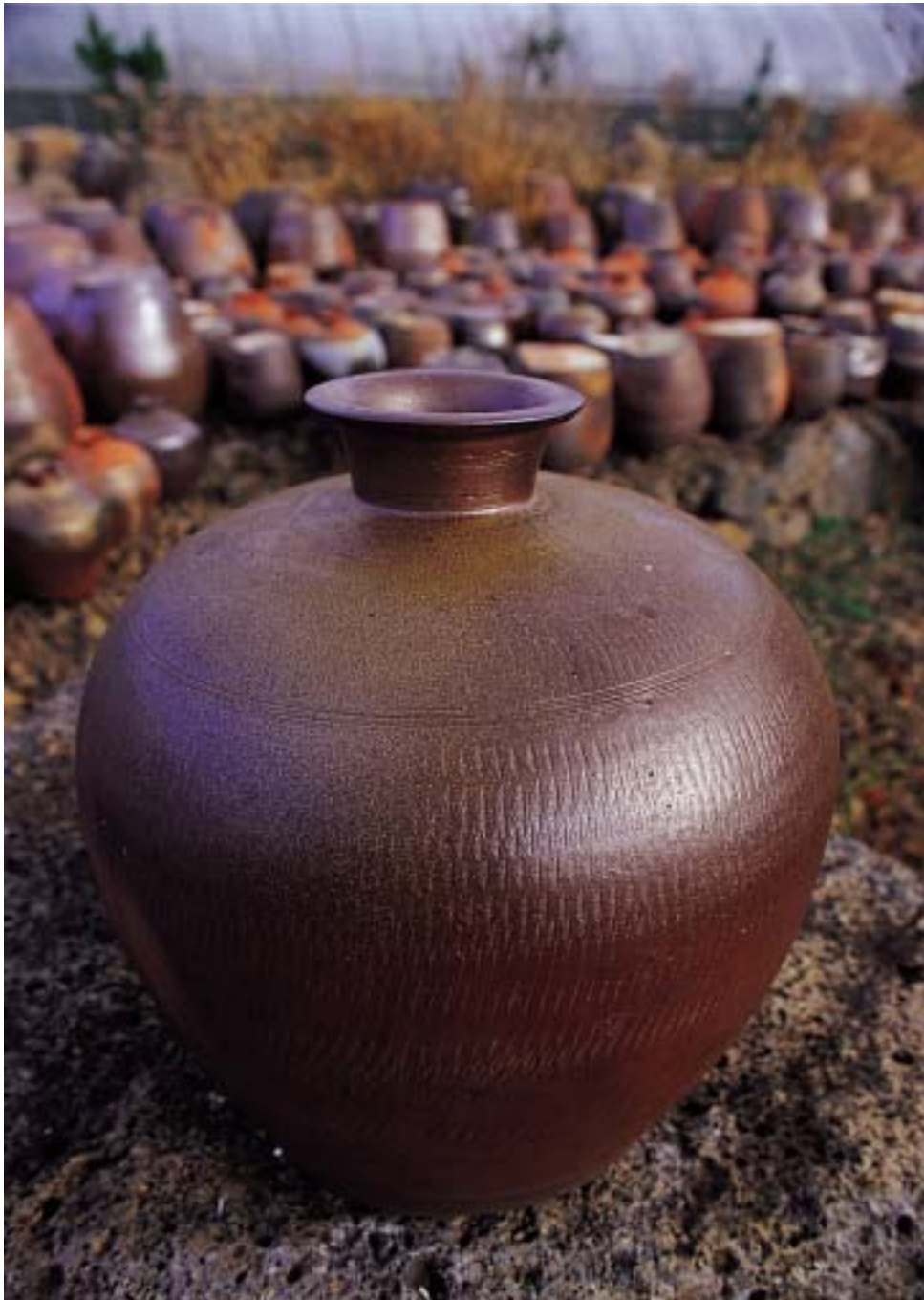
깨진 옹기와 도예원 사람들

제주도예원 풍경



Pleasant talk between potters
Mr.Park Keun Ho, traditional potter
도공들의 환담
옛 도공 박근호 옹





Perfectly fired Heobeok

Onggi for humans. Signboard of the Jeju Ceramic Center

완벽하게 구워진 허벅

인간을 생각하는 옹기



